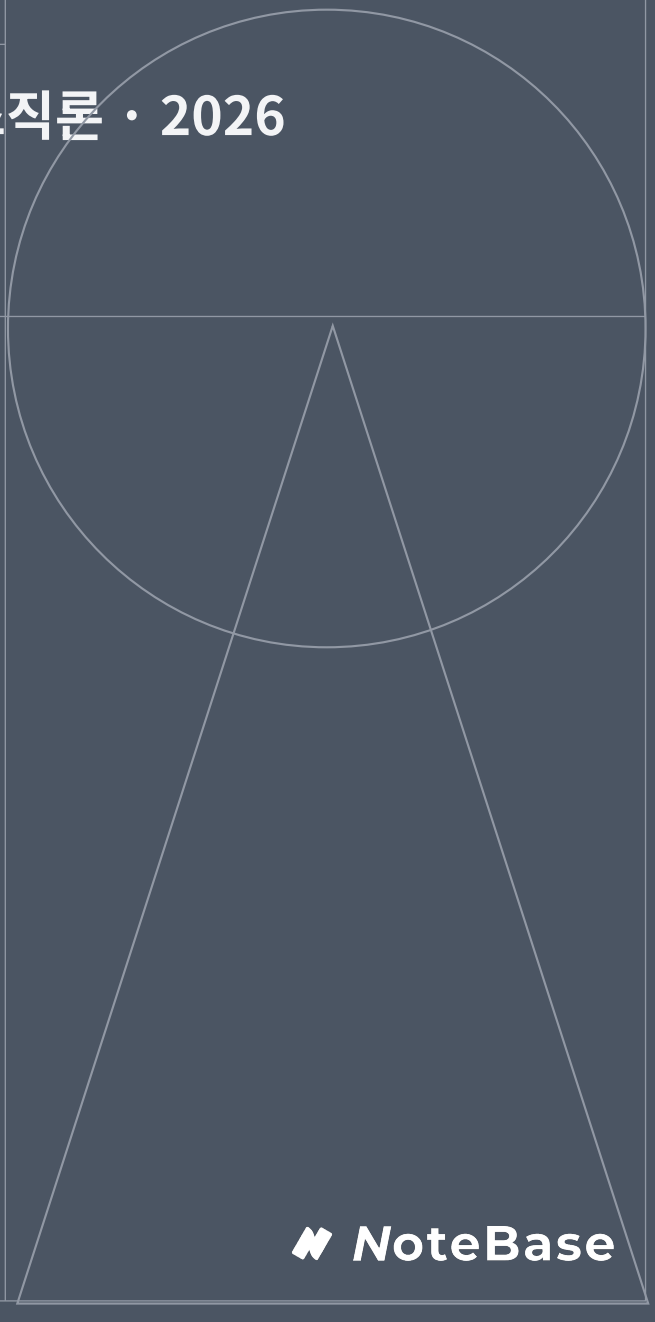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자료조직론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자료조직론 · 2026

공무원/군무원/9급 · 자료조직론 · 2026

1. 청구기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일반적으로 청구기호는 별치기호, 분류기호, 도서기호, 부차적 기호로 구성된다.
(나) 청구기호의 핵심 요소는 분류기호와 도서기호이며, 자료의 특성에 따라 부차적인 기호가 생략되기도 한다.
(다) 부차적 기호는 신착자료의 배가 위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라) 별치기호는 자료의 유형이나 관내 실별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에 포함된다.

① (가), (나)
② (가), (나),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청구기호를 이루는 별치기호·분류기호·도서기호·부차적 기호의 역할을 구별하고, 옳은 설명을 빠짐없이 묶은 조합을 찾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청구기호는 자료의 서가상 위치를 나타내고 개별 자료를 식별하기 위한 기호이다. 일반적으로 별치기호, 분류기호, 도서기호, 부차적 기호로 구성된다.
분류기호는 자료의 주제를 나타내고, 도서기호는 같은 분류기호 안에서 개별 자료를 배열·식별하게 한다. 이 둘이 청구기호의 핵심 요소이다.
별치기호는 자료의 유형이나 관내의 별도 배치 장소를 나타낸다. 부차적 기호는 권차·연도·복본 등의 정보를 덧붙이는 보조 요소이므로 자료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따라서 (가), (나), (라)는 옳고, (다)는 옳지 않다. (다)의 '유일한 기준'이 틀린 표현이다. 배가 위치와 순서는 분류기호와 도서기호를 중심으로 청구기호 전체를 종합하여 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와 (나)는 모두 옳지만, 옳은 (라)가 빠져 있어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가), (나), (라)이다.
② O — (가)는 청구기호의 일반적 구성 요소를 바르게 제시하고, (나)는 분류기호와 도서기호가 핵심 요소이며 부차적 기호는 생략될 수 있음을 바르게 설명한다. (라)도 별치기호의 기능을 정확히 설명한다.
③ X — (다)의 '부차적 기호가 신착자료의 배가 위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표현이 틀리고, 옳은 (가)도 빠져 있다. 실제로는 분류기호와 도서기호를 중심으로 청구기호 전체가 배가의 기준이 되며, 올바른 조합은 (가), (나), (라)이다.
④ X — (다)를 포함한 것이 틀렸다. 부차적 기호는 권차·연도·복본 등의 정보를 보완하는 요소이지 배가 위치를 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가), (나), (라)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포함된 (가)와 (나)가 모두 옳아 정답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라고 하므로 (라)의 누락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다)의 '유일한 기준'은 부차적 기호의 보조적 성격을 핵심 기준으로 과장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진술을 독립적으로 판정한 뒤 조합을 대조한다. 분류기호는 주제, 도서기호는 같은 주제 안의 개별 자료 배열, 별치기호는 자료 유형·별도 위치, 부차적 기호는 권차·연도·복본 등의 보조 정보로 구분한다. '유일한 기준'처럼 보조 요소를 절대화하는 표현은 틀린 진술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분류기호·도서기호는 핵심, 별치기호는 유형·위치, 부차적 기호는 덧붙이는 보조 정보이다.

NoteBase

2. 다음 중 MODS의 상위요소와 DC의 메타데이터 요소의 대응관계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묶인 것은?

<MODS>	-	<DC>
㉠ typeOfResources	-	Rights
㉡ physicalDescription	-	Format
㉢ accessCondition	-	Type
㉣ tableOfContents	-	Description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MODS의 상위요소가 표현하는 의미를 DC의 메타데이터 요소와 정확히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MODS는 서지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XML 기반 메타데이터 스키마이고, DC는 자원의 핵심 특성을 간결하게 기술하는 범용 메타데이터 요소 집합이다.
의미를 기준으로 대응하면 typeOfResource는 자원의 유형이므로 DC의 Type, physicalDescription은 매체와 물리적 형식이므로 Format, accessCondition은 이용·접근 권리에 관한 조건이므로 Rights, tableOfContents는 내용 목차를 기술하므로 Description에 대응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typeOfResource－Rights'가 틀렸다. typeOfResource는 자원의 유형을 나타내므로 Rights가 아니라 Type에 대응한다. ㄴ은 맞지만 정답 조합은 'ㄱ, ㄴ'이 아니라 'ㄴ, ㄹ'이다.

② X
ㄷ의 'accessCondition－Type'이 틀렸다. accessCondition은 자원의 이용·접근 조건을 나타내므로 Type이 아니라 Rights에 대응한다. 정답 조합은 'ㄴ, ㄷ'이 아니라 'ㄴ, ㄹ'이다.

③ X
ㄷ의 'accessCondition－Type'이 틀렸다. 올바른 대응은 'accessCondition－Rights'이다. ㄹ은 맞지만 정답 조합은 'ㄷ, ㄹ'이 아니라 'ㄴ, ㄹ'이다.

④ O
ㄴ의 physicalDescription은 DC의 Format에, ㄹ의 tableOfContents는 DC의 Description에 대응한다. 따라서 'ㄴ, ㄹ'이 가장 적절한 묶음이다.

오답 포인트

영어 표현의 겉모양만 보고 typeOfResource를 Rights와 연결하거나 accessCondition을 Type과 연결하는 것이 함정이다. '무엇인가'는 Type, '어떤 형식인가'는 Format, '어떤 이용 조건인가'는 Rights, '무슨 내용인가'는 Description으로 의미를 풀어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MODS 요소명을 우리말 기능으로 먼저 바꾼 뒤 DC 요소의 의미와 연결한다. typeOfResource는 유형, physicalDescription은 형식, accessCondition은 권리, tableOfContents는 내용 설명으로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자원유형은 Type, 물리기술은 Format, 접근조건은 Rights, 목차는 Description이다.

NoteBase

3.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통합 서지용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코드 가운데 024 기타 표준부호에 기술하는 필드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 국제표준녹음자료부호(ISRC)
② 국제표준악보번호(ISMN)
③ 세계상품부호(UPC)
④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KORMARC 통합서지용에서 024 기타 표준식별자 필드에 기술하는 표준번호·부호와 별도 필드에 기술하는 표준번호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024 필드는 자료에 부여된 표준번호나 부호 가운데 020 ISBN, 022 ISSN, 027 표준기술보고서번호 등 별도 필드에 기술하는 것을 제외한 기타 표준식별자를 기술한다. 024의 제1지시기호는 0이면 ISRC, 1이면 UPC, 2이면 ISMN을 나타낸다. 반면 ISSN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서 022 필드에 기술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국제표준녹음자료부호(ISRC)는 024 필드에 기술하며, 제1지시기호 0으로 유형을 표시한다.
② O — 국제표준악보번호(ISMN)는 024 필드에 기술하며, 제1지시기호 2로 유형을 표시한다.
③ O — 세계상품부호(UPC)는 024 필드에 기술하며, 제1지시기호 1로 유형을 표시한다.
④ X —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024 필드에 기술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ISSN을 022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필드에 기술한다.

오답 포인트

ISRC, ISMN, UPC, ISSN이 모두 국제 표준번호라는 공통점 때문에 전부 024에 기록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024는 별도 전용 필드가 없는 기타 표준식별자를 위한 필드이고, ISSN에는 전용 필드 022가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준번호 문제에서는 먼저 전용 필드의 존재를 확인한다. ISBN은 020, ISSN은 022, 표준기술보고서번호는 027로 분리하고, ISRC·UPC·ISMN 같은 기타 표준식별자는 024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020 ISBN, 022 ISSN, 024 ISRC·UPC·ISMN으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4. 주제와 KDC 제6판 분류기호의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중국지리 – 981.2	㉡ 영국지리 – 982.4
㉢ 페루지리 – 986.3	㉣ 미국지리 – 984.2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KDC 제6판의 지리류에서 대륙별 강목과 국가별 세분 기호를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KDC의 지리류는 980 아래에서 대륙별로 전개된다. 이 문항에서 필요한 연결은 중국지리 981.2, 영국지리 982.4, 미국지리 984.2, 페루지리 985.5이다. 따라서 ㄱ·ㄴ·ㄹ은 옳고, 페루를 986.3으로 연결한 ㄷ은 틀리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의 중국지리 981.2와 ㄴ의 영국지리 982.4는 맞지만, ㄷ의 '페루지리—986.3'이 틀리다. 올바른 조합은 ㄱ·ㄴ·ㄹ이다.
② X — ㄱ의 중국지리 981.2와 ㄹ의 미국지리 984.2는 맞지만, ㄷ이 틀리다. '페루지리—986.3'은 '페루지리—985.5'로 고쳐야 하며, 올바른 조합은 ㄱ·ㄴ·ㄹ이다.
③ O — ㄱ 중국지리 981.2, ㄴ 영국지리 982.4, ㄹ 미국지리 984.2가 모두 맞고, 틀린 ㄷ을 제외한 조합이다.
④ X — ㄴ의 영국지리 982.4와 ㄹ의 미국지리 984.2는 맞지만, ㄷ의 페루지리 986.3이 틀렸고 옳은 ㄱ이 빠져 있다. ㄷ은 '페루지리—985.5'로 고치고, 조합에는 ㄱ을 포함하여 ㄱ·ㄴ·ㄹ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페루가 남아메리카 국가라는 점을 놓치고 오세아니아·양극지방 지리인 986 아래의 기호와 연결하기 쉽다. ㄷ 하나만 판별해도 ㄷ을 제외한 ③으로 좁힐 수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국가가 속한 대륙을 확인해 981 아시아, 982 유럽, 984 북아메리카, 985 남아메리카, 986 오세아니아·양극지방을 정한 뒤 국가별 소수점 기호를 붙인다. 조합형 문항에서는 확실히 틀린 진술이 포함된 선지를 먼저 제거한다.

암기 포인트

중국 981.2, 영국 982.4, 미국 984.2, 페루 985.5이다. 페루는 남아메리카이므로 985에서 찾는다.

NoteBase

5. 다음 중 서지적 관계 유형을 제안한 학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자료의 표현매체와 본문, 언어, 시간, 서지계층과 같은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5가지 서지관계를 제안함.
- 5가지 관계는 대등관계, 수평관계, 연대관계, 계층관계, 특성공유관계 등임.

① G. H. Leazer
② E. Bertha
③ R. P. Smiraglia
④ P. S. Dunkin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자료의 표현매체·본문·언어·시간·서지계층을 매개변수로 삼아 서지적 관계를 5가지로 구분한 학자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E. Bertha: 표현매체, 본문, 언어, 시간, 서지계층이라는 5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대등관계·수평관계·연대관계·계층관계·특성공유관계를 제안하였다.
G. H. Leazer: 저작과 개별자료를 구분하여 연결하는 서지 시스템을 구상했고, R. P. Smiraglia와 함께 파생적 서지관계와 서지가족을 연구하였다.
R. P. Smiraglia: 저작 간 파생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동시적 파생물, 연속적 파생물, 번역물, 증보, 축약, 개작, 공연의 7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P. S. Dunkin: 목록의 원칙과 실제, 희귀본 목록 등의 분야를 다룬 학자로, 제시문의 5가지 서지관계 유형을 제안한 학자는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G. H. Leazer’이다. Leazer는 저작-개별자료의 연결과 서지가족·파생관계 연구에 관련되며, 제시문의 5개 매개변수와 5가지 관계 유형을 제안한 학자는 E. Bertha이다. 따라서 ‘G. H. Leazer’는 ‘E. Bertha’로 고쳐야 한다.
② O — E. Bertha는 표현매체·본문·언어·시간·서지계층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대등관계·수평관계·연대관계·계층관계·특성공유관계의 5가지 서지관계를 제안하였다. 제시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R. P. Smiraglia’이다. Smiraglia는 서지적 관계 가운데 파생관계의 속성을 분석하여 7가지 유형을 제시한 학자이므로, 제시문의 5가지 분류와 다르다. 따라서 ‘R. P. Smiraglia’는 ‘E. Bertha’로 고쳐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P. S. Dunkin’이다. Dunkin은 목록 원칙과 목록 실무를 다룬 학자이지만, 제시된 5개 매개변수에 따른 5가지 서지관계의 제안자는 아니다. 따라서 ‘P. S. Dunkin’은 ‘E. Bertha’로 고쳐야 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Leazer와 Smiraglia도 저작과 서지적 관계를 연구했기 때문에 ①이나 ③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표현매체·본문·언어·시간·서지계층’과 ‘대등·수평·연대·계층·특성공유’의 조합은 Bertha를 가리키는 고유한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이름만 따로 외우기보다 분류의 수와 대표 용어를 묶어 판단한다. 5개 매개변수와 대등·수평·연대·계층·특성공유의 5관계가 함께 제시되면 E. Bertha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Bertha = 5개 매개변수, 5가지 관계이다.

NoteBase

6. ISBD(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재 대부분의 국가와 도서관에서 목록기술을 할 때 ISBD를 바탕으로 한다.
   ② 중요한 특징으로 서지요소의 기록순서와 구두점을 제시하고 있다.
   ③ 서지기술의 표준을 통해 전 세계 데이터의 상호운영성을 강화시키는 표준이다.
   ④ 완전한 서지레코드 작성에 필요한 표목과 주제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ISBD의 기능과 적용 범위를 묻는다. 특히 ISBD가 서지기술의 요소·순서·구두점을 표준화하는 규범이지, 완전한 서지레코드에 필요한 접근점과 주제정보까지 모두 제공하는 규범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ISBD(국제표준서지기술)는 자료의 서지사항을 일관되게 식별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기술요소, 배열 순서, 지정 구두점 등을 표준화한 국제 규범이다. 이를 통해 언어와 국가가 달라도 서지정보를 이해하고 교환하기 쉬워진다. 다만 표목·접근점의 선정과 형식, 주제명이나 분류기호 같은 주제접근 정보는 ISBD의 직접적인 규정 범위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ISBD는 여러 국가와 도서관의 서지기술에 공통 기반을 제공하여 목록기술의 국제적 표준화에 널리 활용된다.

② O — ISBD의 중요한 특징은 서지기술요소의 기록 순서와 지정 구두점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 형식적 통일로 각 요소의 의미와 경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③ O — 서지기술의 형식과 배열을 표준화하면 서로 다른 국가·언어·목록 시스템 사이에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교환하기 쉬워지므로 상호운영성이 강화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완전한 서지레코드 작성에 필요한 품목과 주제 정보를 제공한다'이다. ISBD는 주로 서지기술요소, 그 배열 순서와 지정 구두점을 규정하며, 접근점의 선정·형식이나 주제명·분류기호 같은 주제정보까지 모두 제공하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서지기술에 필요한 요소와 그 순서 및 지정 구두점을 제시한다'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완전한 서지레코드'와 '주제 정보'가 함정이다. ISBD가 서지정보의 국제적 표준이라는 사실을 모든 목록작성 업무를 포괄한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 ISBD의 중심은 기술(description)의 형식 표준화이며, 접근점과 주제접근은 별도의 규칙과 통제도구가 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ISBD 관련 선지는 '기술요소·순서·지정 구두점·국제적 교환'이면 옳은 방향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표목이나 접근점을 결정한다', '주제정보를 제공한다', '완전한 서지레코드의 모든 내용을 규정한다'라고 범위를 넓히면 틀린 방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ISBD는 서지기술의 요소·순서·구두점을 표준화한다. 주제정보와 접근점까지 모두 정하는 규범은 아니다.

NoteBase

7. 연속간행물을 MARC로 입력했을 때 ㉠, ㉡에 해당하는 표시기호로 나열된 것은?

- 표제 / 저자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 Principles and practice
- 발행사항	Amsterdam: Elsevier, 1974-
- 형태사항	v.; 27cm
- 주기사항	Vol.1, no.1(1974)-
- (㉠)	ISSN: 0020-0255
- (㉡)	monthly

① ㉠ 표준번호 020, ㉡ 현재 간행빈도 300
② ㉠ 표준번호 022, ㉡ 현재 간행빈도 310
③ ㉠ 표준번호 022, ㉡ 현재 간행빈도 300
④ ㉠ 표준번호 020, ㉡ 현재 간행빈도 31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연속간행물의 ISSN과 현재 간행빈도를 나타내는 MARC 필드의 표시기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022는 ISS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을 기술하는 필드이고, 310은 현재 간행빈도를 기술하는 필드이다.
020은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300은 형태사항을 기술하므로 이 문항의 두 정보와 대응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의 '020'과 ㄴ의 '300'이 모두 틀렸다. ISSN은 022, 현재 간행빈도는 310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ㄱ의 ISSN은 022, ㄴ의 monthly는 현재 간행빈도이므로 310에 해당한다.
③ X — ㄱ의 '022'는 맞지만 ㄴ의 '300'이 틀렸다. 300은 형태사항이고, 현재 간행빈도는 310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ㄴ의 '310'은 맞지만 ㄱ의 '020'이 틀렸다. 020은 ISBN이고, ISSN은 022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표시기호 020과 022, 300과 310의 숫자가 비슷하다는 점이 함정이다. 연속간행물의 ISSN을 단행본의 ISBN 필드 020과 혼동하거나, 현재 간행빈도를 형태사항 필드 300으로 고르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보의 종류를 먼저 확인한다. ISSN이면 022, 현재 간행빈도이면 310을 대응하고, ISBN의 020과 형태사항의 300을 배제한다.

암기 포인트

ISSN은 022, 현재 간행빈도는 310이다.

NoteBase

8. 메타데이터 스키마인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의 구조적 특징 및 MARC와의 호환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하위 요소로 구분되어 계층구조를 형성하며, 관련된 세부 측면을 상위요소 아래로 그룹화할 수 있다.
② <recordInfo>를 제외한 모든 최상위 요소는 반복 가능하며, 자체 고정 필수요소는 없으나 응용 프로파일을 통해 지정할 수 있다.
③ MARC 21 요소를 재구성하여 호환성이 높으며, MODS에서 MARC로 역변환 시 데이터나 태그의 손실 없이 원본이 완벽히 복원된다.
④ 요소별로 속성(attributes)을 적용하여 세부 측면을 상세히 표현하고 의미적 범주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MODS의 계층 구조, 최상위 요소의 반복성, 속성의 기능과 MARC 21과의 변환 한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MODS: 서지정보를 요소와 속성으로 표현하는 XML 기반 메타데이터 스키마로, 상·하위 요소의 계층 구조를 가진다.
MARC 21: 필드·지시기호·서브필드 등으로 서지정보를 부호화하는 형식이다. MODS는 MARC 21에서 주요 의미 요소를 재구성한 스키마이지만 두 형식의 표현 세밀도가 같지 않으므로 완전한 무손실 왕복 변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MODS는 요소 안에 하위 요소를 두는 계층 구조를 사용하므로 관련된 세부 정보를 상위 요소 아래에 묶어 표현할 수 있다.
② O — <recordInfo>를 제외한 MODS의 최상위 요소는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고, 스키마 자체에 모든 레코드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고정 필수요소는 없다. 다만 특정 응용 프로파일은 별도의 필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데이터나 태그의 손실 없이 원본이 완벽히 복원된다'이다. MODS는 MARC 21의 주요 의미를 반영해 상호 변환에 유리하지만 MARC의 필드·지시기호·서브필드 정보를 모두 동일한 세밀도로 보존하지는 않으므로, 올바르게는 '변환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손실될 수 있어 완전한 무손실 왕복 변환은 보장되지 않는다'이다.
④ O — MODS는 각 요소에 적용되는 속성을 통해 값의 유형·권위정보·표시 방식 등 세부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의 'MARC 21 요소를 재구성하였다'는 앞부분 때문에 호환성을 완전한 가역성으로 오해하기 쉽다. 호환성이 높다는 것은 변환이 용이하다는 뜻이지, 원래의 MARC 태그·지시기호·서브필드까지 항상 완벽하게 되살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MODS의 구조 설명은 '계층적 요소와 속성', MARC와의 관계는 '의미 중심 재구성'으로 판단한다. 변환 선지에 '손실 없이', '완벽히 복원', '완전히 동일'과 같은 절대 표현이 있으면 두 스키마의 세밀도 차이와 가역성 보장 여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MODS는 계층적 XML 요소와 속성, MARC 호환은 높지만 완전한 무손실 왕복 변환은 아니다.

NoteBase

9. DDC 제23판을 이용하여 '문학자료(순수문학)'를 분류할 때, 분류패싯의 조합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언어 – 문학형식 – 시대구분 – 일반형식
② 문학형식 – 언어 – 시대구분 – 일반형식
③ 시대구분 – 언어 – 일반형식 – 문학형식
④ 문학형식 – 언어 – 일반형식 – 시대구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DDC 제23판으로 순수문학을 분류할 때 분류패싯을 결합하는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언어 — 어느 언어의 문학인지 먼저 정한다.
2. 문학형식 — 시·희곡·소설 등 문학의 형식을 정한다.
3. 시대구분 — 해당 문학이 속하는 시대를 구분한다.
4. 일반형식 — 마지막에 일반형식을 결합한다.

왜 이 순서인가: 순수문학의 분류에서는 언어로 기본 위치를 정한 뒤 문학형식을 전개하고, 그 다음 시대구분과 일반형식을 차례로 부가하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언어 → 문학형식 → 시대구분 → 일반형식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 올바르다.

② X — '문학형식 → 언어'로 시작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언어가 문학형식보다 먼저 결합되어야 한다. 올바르게는 '언어 → 문학형식 → 시대구분 → 일반형식'이다.

③ X — 시대구분을 언어보다 앞에 두고 일반형식을 문학형식보다 앞에 둔 부분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언어 → 문학형식 → 시대구분 → 일반형식'이다.

④ X — 문학형식을 언어보다 앞에 두고 일반형식을 시대구분보다 앞에 둔 부분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언어 → 문학형식 → 시대구분 → 일반형식'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문학형식이 작품의 직접적인 특징이라서 이를 가장 먼저 결합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DDC 순수문학의 조합에서는 언어가 먼저이고 문학형식이 그다음이며, 시대구분 뒤에 일반형식이 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수문학의 패싯 순서는 먼저 언어로 기본 위치를 잡고, 작품의 문학형식을 정한 뒤, 시대구분과 일반형식을 차례로 붙이는 흐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언어 → 문학형식 → 시대구분 → 일반형식, 즉 '언·문·시·일' 순서이다.

NoteBase

10. 다음 중 FRBR모델에서 제시한 개체로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표제 / 저자 : Generative AI/Michael Albada - 발행정보 : 2023년 단행본 초판 발행, 2024년 E-Book 발간 - 번역서 : 생성형 인공지능 / 이지능 번역 (2025년 발간) ISBN 978-11-7579-001-3 A 도서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1부 소장 - 주제명 : 생성형인공지능

① 'Michael Albada'와 '이지능'은 제2집단의 개체인 개인에 해당한다.
② '생성형인공지능'은 제3집단의 개체인 개념에 해당한다.
③ 'E-Book'은 제1집단의 개체인 표현형에 해당한다.
④ 'ISBN 978-11-7579-001-3'은 제1집단의 개체인 구현형에 해당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지정보에 나타난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와 개인·개념을 FRBR의 개체 집단에 맞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FRBR 제1집단은 지적·예술적 산출물을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네 단계로 구분한다. 저작은 추상적인 창작 내용, 표현형은 그 내용을 특정 언어나 형식으로 실현한 것, 구현형은 출판사가 특정 판·매체로 발행한 것, 개별자료는 도서관이 실제로 소장하는 한 부이다.
제2집단의 개인은 저작의 창작·번역 등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제3집단의 개념은 저작이 다루는 추상적인 주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Michael Albada’는 저자이고 ‘이지능’은 번역자이므로 모두 저작이나 표현형의 창작에 책임이 있는 제2집단의 개인에 해당한다.
② O —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 자료가 다루는 추상적인 주제이므로 제3집단의 개념에 해당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E-Book은 표현형’이다. 2024년에 E-Book으로 발간된 판은 내용이 특정 전자 매체와 발행 형태로 구현된 것이므로 제1집단의 구현형에 해당한다. 표현형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의 내용을 한국어로 실현한 번역 내용이다.
④ O — ISBN 978-11-7579-001-3은 특정 판과 발행 형태를 식별하는 번호이므로 제1집단의 구현형을 식별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번역 내용’과 ‘E-Book 발행 형태’를 혼동하게 만든다. 언어로 실현된 번역은 표현형이고, 그 번역이 E-Book이라는 매체와 판으로 발행된 것은 구현형이다. 또한 도서관이 소장한 실제 한 부는 개별자료이지만, ISBN 자체는 그 한 부가 아니라 같은 판의 구현형을 식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창작의 추상적 내용이면 저작, 번역 언어·연주 등 내용의 실현이면 표현형,
판·출판사·발행연도·매체·ISBN으로 구별되는 발행 단위이면 구현형, 실제 소장 한 부이면 개별자료로 판단한다. 사람은 제2집단, 저작이 다루는 추상적 주제는 제3집단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내용은 저작, 번역은 표현형, 판·E-Book·ISBN은 구현형, 소장 한 부는 개별자료이다.

NoteBase

11. 다음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레코드 중 리더(leader)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이 가운데, 05자리(레코드 상태)의 'a'와 06자리(레코드 유형)의 'm'이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0	1	0	4	1	a	m	m		a	2	2	0	0	2	6	5		c		4	5	0	0

① a - 기존 레코드의 입력수준을 완전수준으로 올린 레코드
m - 전자자료

② a - 기존 레코드의 입력수준을 완전수준으로 올린 레코드
m - 문자자료

③ a - CIP 레코드를 완전수준으로 올린 레코드
m - 전자자료

④ a - CIP 레코드를 완전수준으로 올린 레코드
m - 문자자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KORMARC 리더의 05자리 레코드 상태 코드와 06자리 레코드 유형 코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리더 05자리는 레코드의 처리 상태를 나타낸다. 여기서 a는 기존 레코드의 입력수준을 완전수준으로 높인 레코드이고, CIP 레코드를 완전수준으로 높인 레코드는 p이다.
리더 06자리는 레코드가 기술하는 자료의 유형을 나타낸다. 여기서 m은 전자자료이고 문자자료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05자리 a는 기존 레코드의 입력수준을 완전수준으로 올린 레코드이고, 06자리 m은 전자자료이므로 두 설명이 모두 맞다.
② X — 05자리 a의 설명은 맞지만, 'm－문자자료'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m－전자자료'이다.
③ X — 06자리 m의 설명은 맞지만, 'a－CIP 레코드를 완전수준으로 올린 레코드'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p－CIP 레코드를 완전수준으로 올린 레코드'이다.
④ X — 두 설명이 모두 틀렸다. 'a－CIP 레코드를 완전수준으로 올린 레코드'는 'p－CIP 레코드를 완전수준으로 올린 레코드'로, 'm－문자자료'는 'm－전자자료'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05자리의 a와 p를 모두 입력수준 상승과 관련된 코드로 보고 혼동하기 쉽다. 기존 레코드의 수준 상승은 a이고, 발행 전 작성된 CIP 레코드의 수준 상승은 p이다. 또한 06자리 m을 '문자자료'의 머리글자로 오해하면 안 되며, m은 전자자료를 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자리별 기능을 나눈다. 05자리는 레코드 상태이므로 a와 p의 대상을 구별하고, 06자리는 자료 유형이므로 m을 전자자료로 판정한다. 그런 다음 한 선지 안의 두 짝을 각각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05자리: a는 기존 레코드 상승, p는 CIP 상승. 06자리: m은 전자자료이다.

12. UDC 주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 : Philosophy, Psychology
② 4 : Languge, Linguistics
③ 6 : Applied Science, Medicine, Technology
④ 9 : Geography, Biography, History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UDC의 주류 번호 0~9와 각 주제 분야의 대응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UDC는 지식 분야를 0부터 9까지의 주류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1류는 철학·심리학, 6류는 응용과학·의학·기술, 8류는 언어·언어학·문학, 9류는 지리·전기·역사에 해당하며, 4류는 비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1류는 Philosophy, Psychology, 즉 철학·심리학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② X — 틀린 부분은 '4 : Language, Linguistics'이다. 언어·언어학은 문학과 함께 8류에 해당하며, 4류는 비어 있다. 따라서 '8 : Language, Linguistics, Literature'로 고쳐야 한다.
③ O — 6류는 Applied Science, Medicine, Technology, 즉 응용과학·의학·기술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④ O — 9류는 Geography, Biography, History, 즉 지리·전기·역사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언어 분야를 숫자 4와 막연히 연결하면 ②를 놓치기 쉽다. UDC에서 언어·언어학·문학은 8류이고 4류는 비어 있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류 번호와 분야를 대응시킨 뒤, 특히 4류는 공석이고 언어·언어학·문학은 8류라는 예외적 배열을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UDC는 4류 공석, 언어·언어학·문학은 8류이다.

NoteBase

13. 자료형태를 RDA의 표현형의 내용유형으로 기술할 때 적절한 것만 고른 것은?

<자료형태>	<내용유형>
㉠ 녹음된 낭독	구어(spoken word)
㉡ 점자악보	악보(notated music)
㉢ 비디오녹화자료	정지화상(still image)
㉣ 운영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 (computer program)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자료의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그 자료에 담긴 내용을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지를 기준으로 RDA의 내용유형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어(spoken word): 낭독·연설처럼 말로 표현되어 청각으로 인식하는 내용이다.
악보(notated music): 음악을 기호로 표기하여 시각으로 인식하는 내용이다. 점자로 표기된 악보는 별도의 촉각 악보(tactile notated music)에 해당한다.
정지화상(still image): 사진·그림처럼 움직이지 않는 2차원 시각 내용이다. 비디오처럼 움직이는 영상은 2차원 동영상(two-dimensional moving image)이다.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 컴퓨터가 실행하거나 처리하도록 작성된 명령의 집합이며, 운영 시스템이 이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맞지만 ㄴ이 틀리므로 적절한 것만 묶은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점자악보 → 악보(notated music)'이며, 올바르게는 '점자악보 → 촉각 악보(tactile notated music)'이다.
② X — ㄴ과 ㄷ이 모두 틀리다. ㄴ은 '점자악보 → 촉각 악보(tactile notated music)', ㄷ은 '비디오녹화자료 → 2차원 동영상(two-dimensional moving image)'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ㄹ은 맞지만 ㄷ이 틀리므로 적절한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비디오녹화자료 → 정지화상(still image)'이며, 올바르게는 '비디오녹화자료 → 2차원 동영상(two-dimensional moving image)'이다.
④ O — ㄱ의 녹음된 낭독은 구어(spoken word), ㄹ의 운영 시스템은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에 해당하므로 두 항목이 모두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자료명에 '악보'나 '녹화'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악보나 화상으로 분류하면 틀린다. 점자는 인식 방식이 촉각이므로 촉각 악보이고, 비디오는 화면이 움직이므로 정지화상이 아니라 2차원 동영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내용의 표현 방식과 인식 감각을 확인한다. 말소리는 구어, 시각적 음악기호는 악보, 점자 음악기호는 촉각 악보, 움직이는 평면 영상은 2차원 동영상, 실행 명령의 집합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낭독은 구어, 점자악보는 촉각 악보, 비디오는 2차원 동영상, 운영 시스템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NoteBase

14. FRBR(서지 레코드의 기능적 요건) 모형의 필요성 및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료유형별 검색 분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된 저작집단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집중시키는 모형이다.

② IFLA에서 개발한 개체-관계(ER) 모델로, 서지 세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한 개념적 참조모델(reference model)이다.

③ 서지 기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데이터 모델(data model)로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모든 표제 유형을 충분히 포괄하여 정의한다.

④ 구성 요소 중 '개체(entity)'는 사물, '속성(attribute)'은 개체의 특성, '관계(relationship)'는 개체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FRBR가 특정 시스템에서 바로 구현하는 실무적 데이터 모델이 아니라, 서지 세계의 개체·속성·관계를 구조화한 개념적 참조모형이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FRBR: IFLA가 개발한 개체-관계 기반의 개념적 참조모형으로, 서지 세계를 공통된 틀로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효과적으로 탐색·식별·선정·입수할 수 있게 한다.
개체는 사물이나 대상을, 속성은 개체의 특성을, 관계는 개체 사이의 연관을 나타낸다.
개념모형은 무엇을 표현해야 하는지를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 데이터 모델은 이를 특정 시스템에서 어떻게 저장·구현할지를 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FRBR는 자료유형별로 분산된 검색의 한계를 줄이고, 동일하거나 관련된 저작과 그 구현형들을 관계로 연결하여 함께 탐색할 수 있게 하는 모형이다.

② O — FRBR는 IFLA가 개발한 개체-관계 모형이며, 서지 세계를 공통된 개념 구조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참조모형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데이터 모델'과 '모든 표제 유형을 충분히 포괄하여 정의한다'이다. FRBR는 특정 시스템의 저장 형식이나 구현 방법을 직접 규정하는 데이터 모델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모형이며, 현장의 모든 표제 유형을 망라하여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서지 세계의 개체·속성·관계를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적 참조모형'이라고 해야 한다.

④ O — 개체는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 등 서지 세계에서 식별하는 대상을, 속성은 그 대상의 특성을, 관계는 대상들 사이의 연관을 뜻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데이터 모델'이라는 말만 보고 FRBR가 서지 데이터를 다루므로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FRBR는 실제 시스템의 필드·레코드 구조를 정하는 구현 모형이 아니라, 서지 개체와 그 관계를 설명하는 상위 수준의 개념모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FRBR의 성격을 묻는 선지에서는 '개념적·추상적·개체-관계·서지 세계의 공통 이해'이면 옳은 방향이고, '구체적 구현 방법·실무용 저장 구조·모든 유형을 망라한 완성된 데이터 모델'이면 틀린 방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FRBR는 구현용 데이터 모델이 아니라 서지 개체·속성·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적 참조모형이다.

NoteBase

15. 틸렛(Tillett)의 7가지 서지적 관계 중 다음 두 개의 KORMARC 서지레코드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1 서지레코드	245 ▼a 채식주의자 767 ▼t (The) vegetarian
2 서지레코드	245 ▼a (The) vegetarian 765 ▼t 채식주의자

① 파생관계
② 기술관계
③ 계층관계
④ 전후관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KORMARC의 연관저록 필드 765와 767이 나타내는 원저와 번역저작의 관계를 틸렛의 서지적 관계 유형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파생관계는 하나의 저작을 번역·개작·편곡·각색하는 등 원저작을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이 만들어지는 관계이다.
765 필드는 원저자료저록을, 767 필드는 번역자료저록을 연결한다. 제1 레코드의 『채식주의자』는 767 필드로 『The vegetarian』을 가리키고, 제2 레코드의 『The vegetarian』은 765 필드로 『채식주의자』를 가리키므로 두 자료는 원저와 번역서의 관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원저 『채식주의자』와 번역서 『The vegetarian』은 번역을 통해 새로운 표현형이 생긴 관계이므로 파생관계에 해당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기술관계'이다. 기술관계는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한 서평·비평·해설처럼 한 자료가 다른 자료를 기술하거나 평가하는 관계이며, 제시된 두 레코드는 원저와 번역서의 파생관계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계층관계'이다. 계층관계는 총서와 개별 권 또는 수록자료와 모자료처럼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이며, 제시된 두 자료는 전체·부분이 아니라 원저와 번역서의 파생관계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전후관계'이다. 전후관계는 계속자료의 선행·후속처럼 시간적 순서로 이어지는 관계이며, 제시된 두 자료는 선후 간행의 계승 관계가 아니라 원저와 번역서의 파생관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두 레코드가 서로를 가리킨다는 형식만 보고 전후관계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관계 유형은 연결 여부가 아니라 필드의 의미로 판단하며, 765와 767의 짝은 원저자료와 번역자료를 나타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관저록 필드의 명칭을 먼저 판별한다. 765가 원저자료, 767이 번역자료를 뜻하면 '원저→번역'의 변형 관계이므로 파생관계로 판단한다. 전체·부분이면 계층관계, 서평·비평이면 기술관계, 선행·후속이면 전후관계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765 원저, 767 번역, 원저와 번역은 파생관계이다.

NoteBase

16. ISNI(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국제표준이름식별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작가, 연구자, 실연자, 영상제작자 등 연구 및 창작 활동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국제표준이름식별자이다.

②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TC46(문헌정보 기술위원회)에 의해 2012년에 국제표준으로 지정되었다.

③ 개인 및 단체의 공적 신원에 대한 다른 표현(철자, 표현형식, 사용문자 및 사용언어의 변화 등)에 대하여 서로 다른 ISNI를 배정한다.

④ 다양한 분야의 동명이인 창작자의 식별이 가능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ISNI가 식별하는 대상은 개인 그 자체나 단순한 이름 문자열이 아니라 창작·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개인·단체의 공적 신원이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SNI: 연구·창작·제작·유통 등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의 공적 신원을 국제적으로 식별하는 표준 식별자이다.
공적 신원과 이름 변형의 구별: 한 당사자가 본명과 필명처럼 서로 다른 공적 신원을 사용하면 각 신원에 별도 ISNI가 배정될 수 있지만, 같은 공적 신원의 철자·표현·문자·언어상 변형은 하나의 ISNI로 연결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작가, 연구자, 실연자, 영상제작자 등 연구·창작 활동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의 공적 신원을 식별하기 위한 국제표준이므로 적절하다.

② O
ISNI는 ISO/TC 46의 소위원회인 ISO/TC 46/SC 9에서 다루었고, ISO 27729:2012가 2012년에 국제표준으로 발행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③ X
틀린 표현은 '같은 공적 신원의 절차, 표현형식, 사용문자 및 사용언어가 달라지면 서로 다른 ISNI를 배정한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공적 신원의 대체 표기나 변형이므로 별도 ISNI를 배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같은 공적 신원의 철자·표현형식·문자·언어 변형에는 동일한 하나의 ISNI를 사용하고, 본명과 필명처럼 서로 다른 공적 신원에는 각각 별도의 ISNI를 배정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④ O
ISNI는 여러 창작 활동 분야에 걸쳐 공적 신원을 고유하게 식별하므로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와 기여자를 식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이름의 표기가 다름'과 '공적 신원이 다름'을 바꾸어 놓았다. 같은 인물이라도 본명과 필명처럼 별개의 공적 신원이라면 서로 다른 ISNI를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공적 신원의 철자·문자·언어·표현 차이는 하나의 ISNI에 묶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이름 차이가 단순한 표기 변형인지, 별도로 활동하는 공적 신원인지 판단한다. 표기 변형이면 동일 ISNI이고, 본명과 필명처럼 공적 신원이 구별되면 별도 ISNI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같은 공적 신원의 여러 표기는 하나의 ISNI, 서로 다른 공적 신원은 별도의 ISNI이다.

NoteBase

17. 다음 중 KDC를 편찬하기 위해 참고한 분류표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 고른 것은?

㉠ KDC의 주류는 DDC의 주류구성에 준거하고 있다. ㉡ 강목의 일부분과 요목 및 세목의 상당 부분은 일본십진분류법(NDC)을 따르고 있다. ㉢ 사회과학의 강목은 국제십진분류법(UDC)을 따르고 있다. ㉣ 의학분야의 요목은 미국의회도서관분류법(LCC)을 따르고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KDC가 기본 골격과 세부 전개를 마련할 때 DDC·NDC·LCC·UDC 중 어떤 분류표를 참고했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KDC는 한국의 실정에 맞게 만든 십진식 문헌분류표로, 하나의 외국 분류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계층과 주제 분야에 따라 여러 분류표를 참고하였다.

ㄱ O: 주류 구성은 DDC에 준거하였다.

ㄴ O: 강목의 일부와 요목·세목의 상당 부분은 NDC를 따랐다.

ㄷ X: 사회과학의 강목은 UDC가 아니라 LCC를 따랐다.

ㄹ X: 의학 분야의 요목은 LCC가 아니라 UDC를 따랐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ㄴ은 모두 옳고, ㄷ과 ㄹ은 모두 틀리므로 옳은 것만 고른 조합이다.
② X — ㄴ은 옳지만 ㄷ의 'UDC'가 틀렸다. 사회과학의 강목은 LCC를 따랐으므로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③ X — ㄴ은 옳지만 ㄹ의 'LCC'가 틀렸다. 의학 분야의 요목은 UDC를 따랐으므로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④ X — ㄱ은 옳지만 ㄹ은 틀렸다. '의학 분야의 요목은 LCC를 따른다'를 '의학 분야의 요목은 UDC를 따른다'로 고쳐야 하므로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ㄷ과 ㄹ은 LCC와 UDC의 적용 분야를 서로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사회과학의 강목은 LCC, 의학 분야의 요목은 UDC라는 대응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계층별 준거를 '주류는 DDC, 강목 일부와 요목·세목 상당 부분은 NDC'로 확인한다. 다음으로 분야별 예외를 '사회과학의 강목은 LCC, 의학의 요목은 UDC'로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큰 틀은 DDC, 세부는 NDC, 사회과학 강목은 LCC, 의학 요목은 UDC이다.

NoteBase

18. 도서기호법 중 조합식 저자기호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정필모의 한국문헌기호표
② 이춘희의 동서저자기호표
③ 리재철의 한글순도서기호법
④ 박봉석의 성별기호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저자명을 표에 미리 열거하여 기호를 찾는 열거식과, 대상어의 문자를 분석하고 대응 기호를 결합하는 종합식 저자기호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정필모의 한국문헌기호표: 저자명을 미리 배열하고 대응 숫자를 부여한 열거식 기호표이다.
이춘희의 동서저자기호표: 동서 저자명을 열거하여 대응 기호를 찾는 열거식 기호표이다.
리재철의 한글순도서기호법: 대상어의 첫 문자와 뒤따르는 자모의 대응 숫자를 분석하여 결합하는 종합식, 즉 분석합성식 기호법이다.
박봉석의 성별기호표: 주요 성을 열거하고 각 성에 숫자를 대응시킨 열거식 기호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정필모의 한국문헌기호표는 저자명을 미리 배열해 놓고 해당 숫자를 찾아 쓰는 열거식이다. 틀린 표현인 '종합식'은 '열거식 저자기호법'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이춘희의 동서저자기호표도 저자명을 표에 열거하고 대응 기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종합식'이 아니라 '열거식 저자기호법'이다.
③ O — 리재철의 한글순도서기호법은 한글의 자모를 분석한 뒤 첫 문자와 자모별 대응 숫자를 결합하여 저자기호를 만든다. 따라서 종합식 저자기호법에 해당한다.
④ X — 박봉석의 성별기호표는 주요 성을 열거하고 각 성에 숫자를 대응시킨 방식이다. 틀린 표현인 '종합식'은 '열거식 저자기호법'으로 고쳐야 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네 선지가 모두 국내 인물과 한글·동서 저자기호표를 연결하고 있어 명칭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핵심 함정은 '표에 항목을 미리 나열했는가'와 '문자를 분석하여 기호를 조합하는가'를 혼동하게 하는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상어의 자모를 분석하고 대응 숫자를 결합하면 종합식으로 판단한다. 저자명이나 성을 표에 미리 나열하고 대응 기호를 찾아 쓰면 열거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 자모 분석 + 기호 합성 = 종합식이다.

NoteBase

19. 듀이십진분류법(DDC) 제23판으로 분류한 결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독일문학전집 - 830.8
② 사회과학논집(월간) - 305
③ 건축이론 - 720.1
④ 자연과학총서 - 500.8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DDC 제23판에서 주제의 기본 분류기호에 자료의 형식이나 이론적 성격을 나타내는 세구분을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형식구분은 자료가 다루는 주제뿐 아니라 전집·연속간행물·이론과 같은 제시 형식을 분류기호에 반영하는 장치이다. 다만 각 주류의 전개 방식이 같지 않으므로, 해당 본표에서 이미 쓰이는 기호와 소수점 및 0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사회과학 전반의 연속간행물은 300에 연속간행물의 구분 05를 적용한 300.5이며, 305는 사회과학 연속간행물의 기호가 아니라 사람의 집단을 뜻하는 본표 기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독일문학 전집은 여러 형식의 독일문학 작품을 모은 자료이므로 독일문학 830에 문학의 전집·선집 구분 8을 결합한 830.8이 적절하다.

② X
월간으로 발행되는 사회과학논집은 사회과학 전반의 연속간행물이므로 300.5로 분류한다. 틀린 표현은 '305'이며, 올바르게는 '사회과학논집(월간) - 300.5'이다. 305는 사람의 집단을 나타내는 별도의 본표 기호이다.

③ O
건축이론은 건축 720에 철학·이론의 구분 1을 결합하므로 720.1이 적절하다.

④ O
이 문항의 분류 판정에서는 자연과학 전반의 총서에 자연과학 500과 총서의 형식구분 8을 결합한 500.8을 적용하므로 제시된 기호가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305를 '300에 05를 붙인 결과'로 착각하기 쉽다. DDC에서는 305가 이미 사람의 집단을 뜻하는 본표 기호이므로, 사회과학 전반의 월간지는 소수점과 0을 유지한 300.5로 써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자료의 주제를 나타내는 기본 분류기호를 찾고, 전집·월간지·이론·총서 같은 형식 또는 취급 방식의 구분을 결합한다. 결합 뒤에는 그 기호가 본표에서 다른 주제로 이미 사용되는지 확인한다. 특히 300.5와 305처럼 소수점 하나로 의미가 달라지는 기호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과학 월간지는 300.5, 305는 사람의 집단이다.

NoteBase

20. 다음 주제에 대한 KDC 제6판과 DDC 제23판의 분류기호가 가장 적절한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주제	KDC 제6판	DDC 제23판
㉠ 윤리학, 도덕철학 (Ethics)	190	170
㉡ 정치학 (Political science)	320	320
㉢ 화학 (Chemistry)	430	530
㉣ 독일문학 (German & related literatures)	850	830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같은 주제라도 KDC 제6판과 DDC 제23판에서 배정되는 분류기호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알고, 표의 네 행에서 두 분류기호가 모두 맞는 행을 가려내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각 주제의 KDC 제6판 분류기호를 확인한다.
2. 같은 주제의 DDC 제23판 분류기호를 확인한다.
3. 두 기호가 모두 맞는 행만 남긴 뒤 그 조합에 해당하는 선지를 고른다.

NoteBase

핵심 근거

ㄱ 윤리학·도덕철학은 KDC 190, DDC 170이므로 두 기호가 모두 맞다.
ㄴ 정치학은 KDC에서는 340이고 DDC에서는 320이므로, 표의 KDC 320이 틀리다.
ㄷ 화학은 KDC에서는 430이고 DDC에서는 540이므로, 표의 DDC 530이 틀리다.
ㄹ 독일문학은 KDC 850, DDC 830이므로 두 기호가 모두 맞다.
따라서 모두 옳게 묶은 것은 ㄱ, ㄹ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맞지만 ㄴ은 틀리다. ㄴ의 '정치학－KDC 320'이 잘못되었으며, 올바르게는 '정치학－KDC 340, DDC 320'이다. 따라서 ㄱ, ㄴ이 아니라 ㄱ, ㄹ이어야 한다.
② X — ㄴ과 ㄷ은 모두 두 체계의 기호가 완전히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정치학이 KDC 340·DDC 320이고, 화학이 KDC 430·DDC 540이다. 따라서 ㄴ, ㄷ이 아니라 ㄱ, ㄹ이어야 한다.
③ X — ㄷ은 DDC 530이 잘못되었고 올바른 DDC 기호는 540이다. ㄹ만 맞으므로 ㄷ, ㄹ이 아니라 ㄱ, ㄹ이어야 한다.
④ O — ㄱ의 윤리학·도덕철학은 KDC 190·DDC 170이고, ㄹ의 독일문학은 KDC 850·DDC 830이다. 두 행 모두 제시된 두 기호가 맞으므로 ㄱ, ㄹ의 조합이 옳다.

오답 포인트

정치학의 DDC 320이 맞다는 이유로 ㄴ 전체를 맞다고 판단하거나, 화학의 KDC 430이 맞다는 이유로 ㄷ 전체를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가장 적절한 것만 모두'라는 조건 때문에 각 행의 KDC와 DDC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특히 DDC 530은 물리학이고 화학은 540이라는 구분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합형 표 문항에서는 한 행을 하나의 판단 단위로 삼아 KDC와 DDC를 각각 대조한다. 둘 중 하나라도 틀리면 그 행 전체를 제외하고, 두 기호가 모두 맞는 행만 조합한다.

암기 포인트

정치학은 KDC 340·DDC 320, 화학은 KDC 430·DDC 540, 독일문학은 KDC 850·DDC 830으로 대비해 기억한다.

NoteBase

21. 자료분류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분류기준에는 어떤 주제나 대상에 복수의 기준(원리)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분류는 유개념에서 종개념까지 점진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③ 분류는 저자의 집필 의도나 저술 목적을 최대한 감안하되, 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유용하도록 분류해야 한다.

④ 각 단계의 분류지는 명확하되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자료분류의 기본 원칙인 단일분류기준, 일반에서 특수로의 점진적 세분, 이용 목적에 맞는 유용성, 분류지의 명확성과 상호 배타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료분류는 공통된 속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체계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일이다.
단일분류기준: 같은 분류 단계에서는 하나의 일관된 기준만 적용한다.
점진적 세분: 유개념인 넓은 범주에서 종개념인 좁은 범주로 단계적으로 나눈다.
유용성: 저자의 집필 의도와 저술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이용자에게 유용하도록 분류한다.
명확성·상호 배타성: 각 분류지의 범위가 분명하고, 같은 단계의 분류지끼리는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어떤 주제나 대상에 복수의 기준(원리)이 적용되어야 한다'이다. 같은 단계에서 기준을 섞으면 분류지가 중복되거나 누락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분류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같은 단계의 분류에는 단일한 기준(원리)을 적용해야 한다'이다.

② O
분류는 범위가 넓은 유개념에서 범위가 좁은 종개념으로 점진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세분하는 원칙에 맞는다.

③ O
자료분류는 저자의 집필 의도와 저술 목적을 최대한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가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O
각 단계의 분류지는 뜻과 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같은 단계에서는 한 대상이 여러 분류지에 동시에 속하지 않도록 상호 독립적·배타적이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복수의 기준'이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한 자료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과, 동일한 분류 단계에서 여러 기준을 동시에 적용해도 된다는 주장은 다르다. 분류 단계 하나에서는 기준도 하나여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 원칙 문제에서는 먼저 같은 단계에 기준이 하나인지 확인한다. 이어서 넓은 개념에서 좁은 개념으로 세분되는지, 분류지가 명확하고 서로 겹치지 않는지,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차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한 단계에는 한 기준, 전개는 유에서 종으로, 분류지는 명확하고 배타적으로, 결과는 이용자에게 유용하게 정리된다.

NoteBase

22. 다음 중 KDC 본표와 표준구분표에 대한 내용으로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본표>		<표준구분표>	
050	일반연속간행물	05	연속간행물
070	신문, 저널리즘	07	지도법, 연구법 및 교육
090	(㉠)	09	(㉡)

① ㉠ - 백과사전 ㉡ - 인용사전
② ㉠ - 일반학회 ㉡ - 각종 단체, 조직
③ ㉠ - 일반전집, 총서 ㉡ - 총서, 전집
④ ㉠ - 향토자료 ㉡ - 역사 및 지역구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KDC 본표의 090과 표준구분표의 09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본표는 자료의 주제를 나타내는 기본 분류번호를 제시하며, 총류의 090은 향토자료이다.
표준구분표는 여러 주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료의 형식·취급 관점을 나타내며, 09는 역사 및 지역구분이다.
비슷해 보이는 090과 09는 자릿수와 쓰임이 다르므로 같은 의미로 판단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090을 '백과사전', 09를 '인용사전'으로 연결한 부분이 모두 틀렸다. 백과사전은 본표 030에 해당하고, 사전·백과사전에 관한 표준구분은 03이다. 올바르게는 090은 향토자료, 09는 역사 및 지역구분이다.
② X — 090을 '일반학회', 09를 '각종 단체, 조직'으로 연결한 부분이 모두 틀렸다. 일반 학회·단체·협회·기관은 본표 060에 해당하고, 학회·단체·협회·기관 등에 관한 표준구분은 06이다. 올바르게는 090은 향토자료, 09는 역사 및 지역구분이다.
③ X — 090을 '일반전집, 총서', 09를 '총서, 전집'으로 연결한 부분이 모두 틀렸다. 일반전집·총서는 본표 080에 해당하고, 총서·전집·선집에 관한 표준구분은 08이다. 올바르게는 090은 향토자료, 09는 역사 및 지역구분이다.
④ O — 본표 090은 향토자료이고 표준구분표 09는 역사 및 지역구분이므로 두 빈칸을 모두 바르게 채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본표의 090과 표준구분표의 09를 숫자 모양만 보고 같은 계열로 생각하면 틀리기 쉽다. 또한 030·060·080의 끝자리와 표준구분 03·06·08이 각각 사전류·단체류·전집류로 대응한다는 점을 이용해 만든 선지에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빈칸이 본표의 세 자리 분류번호인지 표준구분표의 두 자리 번호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총류 본표는 030 백과사전, 060 일반 학회·단체, 080 일반전집·총서, 090 향토자료로 구분하고, 표준구분표는 03 사전·백과사전, 06 학회·단체·기관, 08 총서·전집·선집, 09 역사 및 지역구분으로 대응시킨다.

암기 포인트

KDC 본표 090은 향토자료, 표준구분 09는 역사 및 지역구분이다.

NoteBase

23. 차세대 서지 제어 모델(FRAD, FRSAD) 및 목록 규칙(AACR2, RDA)의 특성과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RDA는 AACR2를 계승해 FRBR · FRAD 용어를 도입하였으며, 그 용어의 개념과 목적도 AACR2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② FRSAD는 주제 표현을 위해 기존 FRBR 제3집단 개체를 발전시켜 '테마(Thema)'와 '노멘(Nomen)' 체계를 구축하였다.

③ 자료유형 중심인 AACR2R과 달리, RDA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며 전체 구조를 기술·접근점 대신 속성과 관계로 재편하였다.

④ RDA는 AACR2R의 1~3 수준 기술 방식에서 벗어나, FRBR · FRAD 기반의 '핵심요소(Core Elements)' 규명 방식을 채택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FRBR·FRAD·FRSAD의 개념적 범위와 이를 반영한 RDA의 기술 구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FRBR: 서지 세계를 개체, 속성, 관계로 구조화한 개념 모형이다.
FRAD: 전거데이터와 그 이용자 과업을 다루는 개념 모형이다.
FRSAD: 주제전거데이터를 위한 개념 모형으로, thema는 저작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대상이고 nomen은 그 thema를 나타내는 명칭·기호 등의 지시 표현이다. 따라서 thema는 FRBR 제3집단 개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RDA: AACR2를 계승하면서 FRBR·FRAD의 개체·속성·관계 관점을 반영한 자원 기술 및 접근 표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RDA는 AACR2의 후속 표준으로 개발되었고 FRBR·FRAD의 용어와 개념적 틀을 도입하였다. 이 선지는 RDA가 기존 목록규칙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개념 모형을 반영했다는 취지이므로 적절하다.
② X. 틀린 표현은 '기존 FRBR 제3집단 개체를 발전시켜'이다. FRSAD의 thema는 개념·대상·사건·장소 같은 FRBR 제3집단뿐 아니라 제1·제2집단 개체를 포함하여 저작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포괄한다. 올바르게는 'FRBR의 주제 관계를 일반화하여 모든 가능한 주제를 thema로, 그 주제를 나타내는 명칭이나 기호를 nomen으로 모형화하였다'라고 해야 한다.
③ O. AACR2가 자료유형별 기술규칙을 중심으로 구성된 데 비해 RDA는 다양한 자원을 포괄하고, FRBR·FRAD의 개체를 그 속성과 개체 사이의 관계로 기술하는 구조를 취한다.
④ O. 원래의 RDA는 AACR2의 1~3수준 기술처럼 완성된 기술 수준을 단계별로 정하는 방식 대신, 주요 이용자 과업을 지원하는 핵심요소를 최소 기술의 기준으로 삼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thema와 nomen이라는 용어 자체는 맞아서 옳게 보이지만, thema의 범위를 FRBR 제3집단으로만 제한한 것이 함정이다. FRSAD는 기존 제3집단 개체의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주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thema로 일반화한 모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FRSAD 선지는 먼저 thema의 범위를 확인한다. '제3집단만'이라고 한정하면 틀리고, '저작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대상'이라고 하면 맞다. 이어서 thema는 주제 대상, nomen은 그 대상을 부르는 명칭·기호라는 관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FRSAD는 '주제 그 자체는 thema, 주제를 부르는 표현은 nomen'이며, thema는 제3집단에 한정되지 않는다.

NoteBase

24. 다음 중 DDC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 고른 것은?

> ㉠ 주류가 주제에 기반을 둔 비십진체계이다.
> ㉡ 본표 및 보조표의 해당 세목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요약이 있다.
> ㉢ 복수의 자료가 동일한 주제를 다루었어도 관점이 다르면 각각의 관점에서 우선 분류하는 관점분류를 지향한다.
> ㉣ 구조적 및 기호적 측면에서 비계층구조를 취하고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DDC의 기본 원리인 학문분야 중심의 십진식 전개, 요약, 관점분류, 계층구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DC는 지식을 학문분야별로 배열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십진식으로 전개하는 분류표이다. 분류항목은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이어지는 계층구조를 이루며, 분류기호도 이 계층성을 나타낸다. 또한 분표와 보조표의 요약은 세목을 빠르게 파악하게 하고, 동일한 주제라도 다루는 학문적 관점이 다르면 각각 그 관점에 따라 분류하는 관점분류를 적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 ㄴ)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부적절한 조합이다. ㄱ의 '주제에 기반을 둔 비십진체계'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DDC의 주류는 학문분야에 기반을 둔 십진식 체계이다. ㄴ의 요약은 본표 및 보조표의 해당 세목과 그 전개를 빠르게 파악하도록 돕는다.

② O (ㄴ, ㄷ)
ㄴ은 본표 및 보조표의 요약이 해당 세목에 신속하게 접근하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ㄷ도 동일한 주제를 다룬 자료라도 관점이나 학문분야가 다르면 각각의 관점에 우선하여 분류하는 DDC의 관점분류를 설명하므로 옳다.

③ X (ㄷ, ㄹ)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부적절한 조합이다. ㄹ의 '비계층구조'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DDC는 구조적 측면과 기호적 측면 모두에서 계층구조를 취한다.

④ X (ㄱ, ㄹ)
ㄱ과 ㄹ이 모두 틀리므로 부적절한 조합이다. ㄱ은 '학문분야에 기반을 둔 십진식 체계'로, ㄹ은 '구조적·기호적 측면에서 계층구조를 취한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주제'와 '비십진', ㄹ에서는 '비계층'이 함정이다. DDC가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주제도 학문적 관점에 따라 나뉘는 학문분야 중심 체계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DDC의 특징을 묻는 문항에서는 '학문분야 중심·십진식·계층적'이라는 기본 축을 먼저 확인한다. 이어 '요약은 탐색을 돕는다', '같은 주제라도 관점이 다르면 각각 분류한다'는 설명인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DDC는 학문분야 중심의 십진식 계층분류이며, 요약으로 찾고 관점에 따라 나눈다.

NoteBase

25. Bliss의 서지분류법(B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2판(BC2)은 1977년부터 분책으로 간행을 시작하였으며, 패싯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② 1902년 Bliss가 발표한 초안은 DDC의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③ 주류 배열 시 인문과학을 가장 상위에, 자연과학을 하위에 배열한다.

④ 하향식 지식분류의 기조만을 고수하여 현대적 분류 이론 발전에 기여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Bliss의 서지분류법(BC)과 제2판(BC2)의 간행 시기, 패싯 구조, 주류 배열 원리 및 지식분류 사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BC는 Henry Evelyn Bliss가 학문적·교육적 합의와 학문 간 관계를 중시해 만든 서지분류법이다. BC2는 BC1을 전면 개정한 제2판으로, 1977년부터 분책으로 간행되었으며 패싯 분석에 바탕을 둔 분류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BC2는 1977년부터 분책으로 간행되기 시작했으며, 패싯 분석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분류법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1902년 Bliss가 발표한 초안이 DDC의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이다. DDC 초판은 그보다 앞선 1876년에 이미 간행되었으므로 1902년의 Bliss 초안이 DDC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Bliss의 초기 구상은 자신의 BC 체계로 발전했다고 해야 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인문과학을 가장 상위에, 자연과학을 하위에 배열한다'이다. BC의 주류는 철학·일반과학에서 자연과학, 생명·인간·사회 분야를 거쳐 기술·예술 및 인문 분야로 전개된다. 따라서 자연과학을 인문과학의 하위에 두는 구조가 아니며, 주류 간 배열 순서와 상하위 계층도 구별해야 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하향식 지식분류의 기조만을 고수하였다'이다. Bliss는 분류가 분석적이면서 종합적이어야 한다고 보았고, 학문적·교육적 합의와 분류의 유연성을 중시하였다. 올바르게는 이러한 관점이 현대 지식조직과 분류이론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1902년'이라는 연도만 보고 선구적 영향으로 오인하게 하지만 DDC 초판의 1876년보다 늦다. ③은 배열 순서를 상하위 관계처럼 표현했고, ④는 Bliss의 분석·종합적 관점을 '하향식만'으로 축소한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BC 관련 선지는 'BC2=1977년 분책 간행·패싯형', 'DDC 초판=1876년', '주류 배열=자연과학에서 인간·사회 및 인문 분야 쪽으로 전개', '분류 사상=학문적·교육적 합의와 분석·종합의 결합'이라는 네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BC2는 1977년·분책·패싯형이고, Bliss는 합의와 분석·종합을 중시한다.

NoteBase